

아브라함 카이퍼와 기독교세계관 개념의 네 원천

최태연(백석대)

1. 들어가는 말

네덜란드의 신학자이며 정치가였던 아브라함 카이퍼는 기독교세계관 운동의 실질적인 창시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그의 기독교세계관 사상을 직접 접할 수 있는 통로는 『칼빈주의 강연』 외에 별로 없는 것 같다.¹⁾ 그렇기에 한국에서 기독교세계관을 접하는 길은 주로 영미권의 기독교세계관 서적을 통한 길이였다. 알버트 월터스의 『창조 타락 구속』, 폴 마샬의 『천국만이 내 집은 아닙니다』, 미들턴과 윌쉬의 『그리스도의 비전』, 제임스 사이어의 『지성의 제자도』 등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독자들은 이런 영미 기독교세계관 서적을 통해서 아브라함 카이퍼의 기독교세계관도 암묵적으로 함께 이해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그동안의 영미의 기독교세계관 이해는 아브라함 카이퍼의 원래의 생각과는 달리 지성주의 경향이 강했다. 필자는 아브라함 카이퍼가 원래 구상한 기독교세계관의 성격은 단순히 지적이라기보다는 훨씬 더 실천적이고 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 논문의 목적은 아브라함 카이퍼의 기독교세계관을 형성에 영향을 준 사상들을 살펴봄으로써 그의 기독교세계관 개념에 내재해 있는 실천적이고 영적 성격을 입증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아브라함 카이퍼에게 영향을 준 사상 네 가지를 언급하고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들 사상을 어떻게 수용했는지를 밝히려 고 한다. 이 네 가지 사상은 첫째, 칼빈과 네덜란드의 개혁주의, 둘째, 독일의 생철학자 딜타이의 세계관의 철학, 셋째, 독일의 가톨릭철학자 프란츠 폰 바더의 신지학적 철학, 넷째, 영국의 장로교 신학자 제임스 오어의 사상이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카이퍼가 이 네 가지 사상을 어떻게 수용했으며 이들 사상이 카이퍼의 기독교세계관 개념에 어떻게 용해되어 있는지를 밝힘으로써 카이퍼의 기독교세계관 개념의 실천적이고 영적인 성격을 드러낼 것이다.

2. 칼빈과 네덜란드의 개혁주의

1) 그 외에 국내에 번역된 아브라함 카이퍼의 책으로는 『기독교와 사회문제』, 조계광 옮김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5), 『성서속의 여인들』, (서울: 한국기독교문서간행회, 2005); 『하나님께 가까이』, 정성구 옮김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11)가 있다.

1837년 네덜란드 개혁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카이퍼는 칼빈주의 전통이 관습화된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성장했다. 그의 아버지인 얀 프레드릭 카이퍼는 어려운 형편에서 장학금을 받아 신학을 공부하여 네덜란드 개혁교회 목사가 되었다. 얀 카이퍼는 초자연적 신앙을 가진 정통주의 목사였으나 교리적 정확성보다는 평화와 관용을 더 중시하는 온건한 정통주의자였다.²⁾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런 아버지의 영향아래 신학적으로 온건한 칼빈주의의 분위기에서 자랐다. 그렇기 때문에 카이퍼는 어린 시절부터 진보와 보수 양 진영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실제로 그는 대학시절 레이든대학 신학부의 모더니즘을 받아들였다가 그 후 시골 베이스트 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여 그곳의 정통 칼빈주의 신자들과 교제하면서 경건하고 생동감있는 칼빈주의 신앙을 받아들였다.

그가 칼빈주의와 본격적으로 만난 것은 김나지움 시절이었다. 특히 그는 김나지움 역사교수인 로버트 프라인(Fruin)을 통해서 칼빈주의가 네덜란드 역사에 준 긍정적 영향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칼빈주의의 역사적 기여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이 영향이 카이퍼가 박사과정에서 역사신학을 전공으로 택하고(1859), 칼빈(Calvin)과 아 라스코(a Lasco)의 교회관에 대한 현상논문을 쓰고(1860), 먼 훗날 프린스턴에서 『칼빈주의 강연』을 하는데(1898)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크게 보아 아브라함 카이퍼와 칼빈의 만남은 크게 네 가지 과정으로 볼 수 있다.

1) 카이퍼는 모태로부터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문화 속에서 성장했다. 그에게는 칼빈주의는 물고기에게 물처럼 자연스런 것이었다. 그러나 이 칼빈주의는 그가 레이든 대학 신학부에 입학하여(1855) 라우언호프(Rauwenhoff)와 스킨(Scholten)같은 쟁쟁한 근대주의 신학자의 강의를 들으면서 혼란스럽게 되었다. 그는 레이든대학에서 신학석사를 마칠 무렵 그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졌고 교회의 성립근거는 성령이라고 믿었지만, 전통적인 칼빈주의 교리에 대해 거리를 취하게 되었다.

2) 1859년 카이퍼는 레이든 대학에서 그가 친하게 지냈던 네덜란드문학교수

2) 그래서 훗날 얀 카이퍼는 아들 아브라함 카이퍼의 분리주의 운동을 거리를 두면서 조심스럽게 따랐다. (Jan de Bruijn, *Abraham Kuiper: A Pictorial Biography*, Grand Rapids: Eerdmans, 2014, 3.).

드 프리스(De Vries)의 제안으로 네덜란드 북부의 흐로닝헌 대학이 주관하는 제네바의 개혁자 칼빈(Calvin)과 런던에서 네덜란드 신자들을 목회했던 폴란드 출신 개혁자 아 라스코(a Lasco) 대한 현상논문에 응모한다. 그는 네덜란드 도서관에서 구할 수 없었던 아 라스코의 라틴어 전집을 드 프리스 교수의 부친인 드 프리스 목사로부터 기적적으로 얻는다. 그는 1년 동안의 집중적인 연구를 통해 1860년 23살의 나이에 ‘칼빈(Calvin)과 아 라스코(a Lasco)의 교회관’에 대한 논문을 흐로닝헌에 제출하고 최고상인 금메달을 받는다. 6년 후에 그는 아 라스코 전집을 새로 개정하여 주석을 달아 출판한다.³⁾ 이 전집을 통해 그는 뛰어난 역사신학자로 인정받는다. 이 연구를 통해 그는 칼빈의 신학과 네덜란드 개혁주의 사상에 이론적으로 접근했다. 여기서 그는 칼빈을 엄격한 교리주의자로, 아 라스코를 삶의 실천을 강조했던 복음주의자로 파악했다.⁴⁾

그러나 이 당시 카이퍼의 칼빈이해는 훗날 『칼빈주의 강연』을 할 때의 성숙한 카이퍼와는 사뭇 달랐다.⁵⁾ 1860년의 『칼빈과 아 라스코의 교회론』에 대한 주석(Commentatio)에서 카이퍼는 칼빈보다는 슐라이어마허의 교회론을 바람직한 교회의 모델로 보았다. 그는 영적인 공동체(spiritual community)로서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유기적이고 친밀한 연합에 있다고 보았다. 그는 칼빈의 교회론은 목회자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주었고 제네바에서 교회와 국가 간의 거리를 충분히 두지 못했다고 생각했다.⁶⁾ 또한 그는 칼빈의 예정론을 거부하고 하나님은 현재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통치하신다는 점을 강조했다.⁷⁾ 젊은 카이퍼에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timor Dei)는 지나치게 구약적으로 보였다. 그래서 그는 칼빈이 지나치게 구약을 받아들인다고 보았고 그에 비해 아 라스코는 복음서를 중시했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⁸⁾

3) Jasper Vree, Johan Zwaan, *Abraham Kuyper's Commentatio (1860): The Young Kuyper about Calvin, a Lasco, and the Church* (Brill's Series in Church History 24) (v. 1 & 2), Brill, 2005.

4) 루이스 프람스마,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 - 아브라함 카이퍼의 생애와 그의 시대』, 서울: 복있는 사람, 2011, 99~100.

5) 카이퍼는 『칼빈주의 강연』에서 칼빈주의의 예정론에 따라 하나님과 신자의 현재적 교제가 “영원부터 하나님의 평화의 경륜과 전적으로 일치”한다고 고백한다. (아브라함 카이퍼, 『칼빈주의 강연』,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6), 31.)

6) Jasper Vree, Johan Zwaan, *Abraham Kuyper's Commentatio (1860): The Young Kuyper about Calvin, a Lasco, and the Church*, v. 1, 51.

7) Jasper Vree, Johan Zwaan, *Abraham Kuyper's Commentatio (1860): The Young Kuyper about Calvin, a Lasco, and the Church*, v. 1, 65.

8) Jasper Vree, Johan Zwaan, *Abraham Kuyper's Commentatio (1860): The Young Kuyper about Calvin, a Lasco, and the Church*, v. 1, 91.

3) 레이든대학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1862) 카이퍼는 첫 목회지인 베이스트(Beesd)에 청빙 받는다. 그때까지 이론에 머물렀던 그의 칼빈주의는 일정한 시간을 거친 후, 진정한 회심을 통해 체험적인 칼빈주의 신앙으로 변화된다. 그를 변화시킨 사람들은 방앗간집 딸 빼쳐 발투스(Pietje Baltus)같은 베이스트 교회의 평범한 신자들이었다. 그들은 레이든대학의 신학교육을 받은 신학박사 카이퍼를 불신하여 예배에도 나오지 않고 심방한 그와 악수조차 꺼렸다. 그러나 카이퍼는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는 칼빈주의 신앙을 받아들인다. 이 사건은 카이퍼의 삶에 ‘떠오르는 새벽별’이 되었다. 그는 이제 칼빈과 칼빈주의 신앙과 신학을 “영혼이 진정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절대적인 확신”⁹⁾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일과 뜻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의 마음을 갖게”¹⁰⁾ 되었다.

4) 1898년 원숙한 경지에 도달한 카이퍼는 프린스턴대학에서 6개의 강의를 한다. 그중의 첫 강의인 ‘삶의 체계로서의 칼빈주의’에서 그는 칼빈주의의 세계관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열거한다. (1) 사제주의에 대항하여 십자가의 영광을 다시 드러내고 인간의 교만을 거부한다. (2)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기독교 이념을 순수하고 정확하게 구현한다. (3) 칼빈주의는 성경의 진리를 포괄적으로 드러나는 삶의 체계(life-system)이며 삶의 자유로운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4)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우주론적 원리를 채택한다. (5) 하나님과 신자사이의 직접적인 교제를 추구하며 신자 안에서 교회를 본다 (6) 영원한 구원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준다. (7) 전체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는 확신을 준다. (8)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서로 동등하며 더 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이 덜 가진 사람을 섬겨야 한다. (9) 사회의 예측적인 위계질서를 반대하고 사회구조를 개혁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

여기서 카이퍼가 여기서 받아들인 칼빈주의는 단지 교리나 교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계시로부터 파생된 기독교 전체에 대한 새롭고 일관된 비전이다. 이 비전의 기원을 그는 16세기 개혁자 칼빈에게 돌린다¹¹⁾.

3. 달타이

9) 루이스 프람스마,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 - 아브라함 카이퍼의 생애와 그의 시대』, 108.

10) 루이스 프람스마,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 - 아브라함 카이퍼의 생애와 그의 시대』, 108.

11) 아브라함 카이퍼, 『칼빈주의 강연』, 32; Steve Bishop and John B. Kok, *On Kuyper*, Dorcht College Press, Sioux Center: Iowa 2013, 221.

아브라함 카이퍼의 세계관 개념의 원천으로서 빼놓을 수 없는 사상가가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빌헬름 딜타이다. 비록 카이퍼가 그의 저작에서 딜타이와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지만, 당시 독일 낭만주의와 역사주의에서 사용되던 ‘벨트안샤웅’(Weltanschauung) 개념을 사용했음은 분명하다. 한 예로 카이퍼는 그의 신학적 입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거룩한 신학의 백과사전’(Encyclopedia of sacred theology)의 첫머리에서 이 개념을 사용한다. 그에게 세계관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젊은이들을 교육할 때 사용했던 원리로서 “단편화 된 인간지식을 통일시켜주는 원리”로서 ‘한 사람의 삶을 둘러싼 원’(one's life-circle)¹²⁾과 같은 것이었다.

딜타이는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 독일에서 대중적으로 사용되었던 세계관의 개념을¹³⁾ 자신의 철학에 수용하여 철학적으로 규명한 철학자다. 그는 자연과학에 대립되는 정신과학의 철학인 생철학과 해석학의 방법을 확립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았다. 재미있는 사실은 딜타이 역시 카이퍼와 마찬가지로 개혁신교회 목사의 아들이라는 점이다. 딜타이의 아버지는 독일 비스바덴의 개혁신교회 목사였고 아들을 하이델베르크대학 신학부에 입학시켰다. 딜타이는 하이델베르크와 베를린에서 신학과 역사학을 공부한 후, 신학석사 국가시험을 수석으로 합격했을 정도로 우수한 학생이었다. 학문적인 성취를 통해 교수직을 추구했던 딜타이도 카이퍼와 비슷한 시기인 1859년에 술라이어마허 재단의 현상논문에 당선되어 본격적인 철학연구에 몰두하게 된다.¹⁴⁾ 일생동안 자신의 철학을 추구했던 딜타이는 술라이어마허를 이어 전통적인 문헌해석학과 신학적 해석학을 철학으로 발전시켰다. 딜타이가 관심을 가진 또 하나의 주제는 세계관(Weltanschauung)이었다. 그는 세계관을 ‘철학의 철학’이라고 규정하면서 철학의 기초를 제공하는 일관된 믿음으로 보았다.

딜타이에게 모든 세계관의 궁극적 뿌리는 삶(das Leben)이다. 그러므로 세계관은 개인의 삶의 체험에서 시작된다. 한 사람이 매일매일 주관적으로 체험하고 관찰하고 기억하고 언어로 표현한 내용이 다양한 세계관의 내용과 형식을 만들어내는 원천이다. 그렇기에 세계관은 한 개인의 본능과 감정이 주위 환경과 만나서 형성된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관의 밑바닥에는 꿈, 놀이, 관찰, 가벼운 흥분 등의 비이성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¹⁵⁾ 이

12) Abraham Kuyper, *Encyclopedia of sacred theology*, Wilmington: Delaware, AP&A, 11.

13) Peter Heslam, *Creating A Christian Worldview*, Grand Rapids: Eerdmans, 1998, 89.

14) 빌헬름 딜타이, 『해석학의 탄생』, 손승남 옮김, (서울: 지만지, 2008), 27.

15) Wilhelm Dilthey, *Gesammelte Schriften Band VIII*. Goe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4. Aufl.

런 개인적 반응들이 반복되고 연결되어 일종의 보편적 정서(die universalen Stimmungen)를 형성하게 되면 세계관의 하층부인 세계상(Weltbild)를 형성한다. 예를 들면 낙관주의나 비관주의 같은 커다란 삶의 정서들이 세계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세계상이다. 그러나 세계관의 형성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사람들은 이 세계관을 통해 삶의 모든 수수께끼를 풀기를 원한다. 따라서 세계관은 여러 단계의 발전단계를 거쳐 세계의 의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최고의 이상, 최고선과 상위의 규범을 형성한다. 이것이 세계관의 최상위층을 구성한다.¹⁶⁾ 더 나아가서 딜타이는 세계관의 유형은 다양한데, 그 차이는 세계관이 형성된 조건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기후, 인종, 국가형태, 시대적 배경 등이 서로 다른 세계관을 산출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딜타이에게는 세계관도 특정한 역사적인 산물이다. 그는 이렇게 형성된 대표적인 형이상학적 세계관을 세 가지 - 자연주의(der Naturalismus), 자유의 관념론(der Idealismus der Freiheit), 객관적 관념론(der objektiver Idealismus) - 로 열거한다.¹⁷⁾

이상에서 딜타이의 세계관 개념은 단순히 사고작용이나 인식의지로부터 나오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딜타이의 세계관 개념은 유한하며 역사적 제약을 받는 삶에서 나오며 개인들의 욕구와 정서반응을 통과하여 윤리적 가치나 이성적 규칙을 산출한다. 결코 이다. 따라서 세계관은 인간의 생생한 내면을 담고 있는 근본감정(Grundstimmung)이며 부분적 지식을 통해서도 결코 얻을 수 없는 전체에 대한 직관(Anschauung)과 맞닿아 있다. 결론적으로 카이퍼는 딜타이의 세계관 이론을 직접 인용하지 않았지만, 삶의 총체적이고 체험적 차원을 강조한 점에서 딜타이 세계관 이론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4. 프란츠 폰 바더

최근 글렌 프리젠(J. Glenn Friesen)의 연구를 통해 밝혀진 대로¹⁸⁾ 카이퍼는 네덜란드 개혁신학의 한 흐름인 윤리학과(중재신학)의 대표자 들 라 소 세이(de la Saussaye)와 훔닝(Gunning)을 통해서 독일의 가톨릭철학자 프란

1968, 78~79.

16) Wilhelm Dilthey, *Gesammelte Schriften Band VIII*. 82~84.

17) Wilhelm Dilthey, *Gesammelte Schriften Band VIII*. 84, 100.

18) J. Glenn Friesen, *Neo-Calvinism and Christian Theosophy - Franz von Baader, Abraham Kuyper, Herman Dooyeweerd*, Calgary: Aevum Books, 2015.

츠 폰 바더(Franz von Baader)의 신지학적 철학(Theosophy)을 알게 되었다. 윤리학과는 칸트적인 의미의 윤리주의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교리가 아닌, ‘내면적인 개인의 삶의 깊은 영역’에서 발견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덴마크의 루터교 철학자 키에르케고어 뿐만 아니라, 독일의 가톨릭 철학자 프란츠 폰 바더를 발견했다.¹⁹⁾ 이들 윤리학과를 통해 폰 바더를 알게 된 카이퍼는 그의 ‘모더니즘 비판’ 논문²⁰⁾에서 폰 바더가 ‘신체실재성’(corporeality)에 주목하여 성경적 실재론을 제시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성경의 초자연적 사건들은 관념적 사건이 아니라, 말씀의 성육신과 부활이 보여준대로 실재적 사건이라는 것이다.²¹⁾

프리젠에 따르면 프란츠 폰 바더는 세계관이란 단어를 1931년부터 사용했고 그의 주저 『우주의 무한사』(Weltalter)에서도 다룬다. 폰 바더에게 세계관은 어떻게 우리 신앙이 인간 내면이 그리스도의 내적 실재와 만나는가의 문제였다. 신앙은 단순한 지적 동의에 그치지 않고, 행위와 경험을 하도록 만든다. 폰 바더는 세계관이 철학적 체계나 공리나 개념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것은 세계에 대한 실제적인 공리이거나 체계이다.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에게 사물을 보는 새로운 눈을 제공한다. 우리의 진정한 자아(stasis)는 시간에 예속되어있지 않고 시간을 뛰어 넘는다.²²⁾ 폰 바더는 본질을 파악하려는 개념적인 철학에 대해 종교의 인식과 행위를 구체적인 형태로 보여주는(figurlich) 것이라고 본다. 세계관은 이러한 인식에서 생겨난다. 그의 말을 들어보자.

“우리는 생생하거나 생생하지 않은 인식과 행위를 본질적인 인식과 비본질적인 인식으로 구별할 수 있다. 또는 형태(Figur)라는 단어가 본질에 대립되는 표현이라면 본질적 인식과 형태적 인식으로 구별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종교가 이에 대해 끈질기게 가르치는 것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이러한 본질적 인식과 행위와 형태적 인식과 행위의 차이를 잊지 말아야 한다... 철학은 오랫동안 인간 인식과 행위의 기능을 너무 추상적으로 파악해왔고 인간의 중심, 즉 감정(Gemueth)에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의 기능과 능력을 간과해 왔다.”²³⁾

19) 루이스 프람스마,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 - 아브라함 카이퍼의 생애와 그의 시대』, 83~84.

20) Abraham Kuyper, "Modernism: A Fata Morgana in the Christian Domain", ed. James Bratt, *Abraham Kuyper: A Centennial Reader*, Grand Rapids: Eerdmans, 1998, 87~124.

21) Abraham Kuyper, "Modernism: A Fata Morgana in the Christian Domain", 102.

22) J. Glenn Friesen, *Neo-Calvinism and Christian Theosophy - Franz von Baader, Abraham Kuyper, Herman Dooyeweerd*, 44~45.

카이퍼는 이러한 폰 바더의 철학으로부터 근대주의(모더니즘)를 반대하는 기독교세계관의 논거를 발견했다.²⁴⁾

첫째, 기독교세계관은 근대주의(모더니즘) 세계관에 대해 대립적인 세계관이다.

둘째, 성경의 세계는 ‘성경적 실재론’이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추상적 개념에서 벗어나 몸이 되는 것을 말한다. 몸을 입는 것은 시간을 초월한 의식을 자연을 통해 실재로 만드는 것이다.

셋째, 모든 학문도 그리스도의 실재 앞에서 기독교세계관적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이 학문은 일반학문과 대립한다.

이처럼 카이퍼는 비록 폰 바더가 가톨릭 철학자지만 그의 철학을 통해 모더니즘으로부터 기독교를 방어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그의 사상을 수용했다. 세계관이 지성적인 인식의 결과라기보다는 상상력을 활용하며 인간의 근본정서에서 출발한다는 폰 바더의 세계관은 딜타이와도 유사하며 카이퍼의 세계관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

5. 제임스 오어

카이퍼는 1898년 『칼빈주의 강연』에서 바로 1년 전인 1897년에 출간된 오어의 강연 『성육신에 중심을 둔 기독교 신관과 세계관』(The Christian View of God and World as Centring in the Incarnation)을 언급한다. 이 강연에서 오어는 처음으로 독일어 ‘벨트안샤웅’(Weltanschauung)을 영어 ‘월드뷰’(the view of world)로 번역했다. 그러나 카이퍼는 이 영어 단어가 독일어 원래의 의미를 충분히 전달하기 어렵고 주로 ‘물리적 자연’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인생관과 세계관’(life and worldview) 또는 미국인 친구가 알려준 “삶의 체계”(life system)라는 번역을 함께 사용한다고 말한다.²⁵⁾

카이퍼와 오어는 기독교가 하나의 세계관으로서 모든 사물과 자연과 도덕의 모든 면을 포괄하는(comprehensive) 체계라는 점에 동의한다. 오어는 그러

23) Franz von Baader, *Die Weltalter*, hrsg. von Franz Hoffmann, Erlangen: Eduard Besold, 1868, 119.

24) J. Glenn Friesen, *Neo-Calvinism and Christian Theosophy - Franz von Baader, Abraham Kuyper, Herman Dooyeweerd.*, 76~77.

25) 아브라함 카이퍼, 『칼빈주의 강연』, 19.

한 관점에서 기독교세계관을 정의한다. “기독교세계관은 기독교가 세계에 대한 최고의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 삶에 대한 관점이 질서있는 전체를 구성한다는 사실과 관련되어 있다.”²⁶⁾ 또한 그들은 기독교세계관이 근대주의(modernism)의 철학과 과학의 공격으로부터 기독교를 성공적으로 방어해 줄 수 있다고 믿었다.²⁷⁾ 그러나 카이퍼와 마찬가지로 오어가 말하는 기독교세계관은 지성주의적 협소함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에게 기독교세계관은 이론과 실천, 이성과 영성 모두를 포함하는 기독교의 체계였다. 그는 기독교세계관을 구성하는 신학적 핵심 원리를 다음과 같이 아홉가지로 요약한다.²⁸⁾

- 1) 기독교적 관점은 인격적이고 윤리적이고 자기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
- 2) 기독교적 관점은 하나님에 의한 세계의 창조를 인정한다.
- 3) 기독교적 관점은 인간의 영적 성격과 존엄성을 인정한다.
- 4) 기독교적 관점은 죄의 사실과 그에 따른 세계의 왜곡을 인정한다.
- 5) 기독교적 관점은 족장들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기계시와 예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이 세상에 왔음을 인정한다.
- 6) 기독교적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써 신이심을 인정한다.
- 7) 기독교적 관점은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한 세계의 구속을 인정한다.
- 8) 기독교적 관점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역사적 목적이 개인들의 구원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질서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음을 인정한다.
- 9) 기독교적 관점은 역사의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최후심판과 모든 죽은이들의 부활과 천국과 지옥의 분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오어에게 바른 기독교세계관은 내면적이고 주관적인 종교경험을 중시하는 신비주의적 측면과 교리와 역사적 실재를 중시하는 객관주의를 모두 포함한다. 이 점에서 오어의 기독교세계관 아브라함 카이퍼와 일치하며 카이퍼에게 길을 열어주었다고 할 수 있다.

26) James Orr, *The Christian View of God and World*, Lexington: KY, CreateSpace, 2012, 4.

27) James Orr, *The Christian View of God and World*, 5.

28) James Orr, *The Christian View of God and World*, 22~24.

6. 결론

필자는 이 논문에서 그동안의 영미의 기독교세계관 이해가 아브라함 카이퍼의 원래의 생각과는 달리 지성주의 경향이 강했다고 보고 이를 수정하기 위해 아브라함 카이퍼가 원래 구상한 기독교세계관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그의 세계관 개념의 원천이 되는 네 가지 신학사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카이퍼가 수용한 세계관의 개념은 단순히 지적이라기보다는 훨씬 더 실천적이고 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칼빈과 네덜란드의 개혁주의, 둘째, 독일의 생철학자 딜타이의 세계관의 철학, 셋째, 독일의 가톨릭철학자 프란츠 폰 바더의 신지학적 철학, 넷째, 영국의 장로교 신학자 제임스 오어의 세계관 개념은 한결같이 지성을 포함하지만, 그것을 넘어 종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필자는 이러한 토대 위에서 카이퍼가 자신의 기독교세계관 개념을 형성했다고 본다. 따라서 카이퍼의 기독교세계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천적이고 영적인 측면을 더욱 면밀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아브라함 카이퍼, 『칼빈주의 강연』,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6.
루이스 프람스마,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 - 아브라함 카이퍼의 생애와 그의 시대』, 서울: 복있는 사람, 2011.
빌헬름 딜타이, 『해석학의 탄생』, 손승남 옮김, 서울: 지만지, 2008
Abraham Kuyper, *Encyclopedia of sacred theology*, Wilmington: Delaware, AP&A,
Abraham Kuyper, *Herman Dooyeweerd*, Calgary: Aevum Books, 2015.
Jan de Bruijn (2014), *Abraham Kuyper, A Pictorial Biography*, Eerdmans, Grand Rapids, Michigan. 2014.
James Bratt (ed), *Abraham Kuyper: A Centennial Reader*, Grand Rapids: Eerdmans, 1998.
James Orr, *The Christian View of God and World*, Lexington: KY, CreateSpace, 2012
Jasper Vree, Johan Zwaan, *Abraham Kuyper's Commentatio (1860): The Young Kuyper about Calvin, a Lasco, and the Church* (Brill's Series in Church History 24) (v. 1 & 2), Brill, 2005.
J. Glenn Friesen, *Neo-Calvinism and Christian Theosophy - Franz von Baader*, Steve Bishop and John B. Kok, *On Kuyper*, Dordt College Press, Sioux Center: Iowa 2013.
Franz von Baader, *Die Weltalter*, hrsg. von Franz Hoffmann, Erlangen: Eduard Besold, 1868.
Peter Heslam, *Creating A Christian Worldview*, Grand Rapids: Eerdmans, 1998.
Wilhelm Dilthey, *Gesammelte Schriften Band VIII*. Goe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4. Aufl. 1968.